

온라인상 '벌레퇴치' 요청 쇄도 '주의'

중고거래 앱 게시물 잇따라...실시간채팅 주소지 공개 여성 대상 범죄 우려 제기...“개인정보 노출 자제해야”

최근 중고거래 모바일 앱에서 물건 거래가 아닌 '벌레 퇴치'를 요구하는 제안이 잇따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게시글을 올리는 이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여성'들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 자신의 주소지를 공개하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17일 한 중고거래 모바일 앱에 따르면 해당 앱은 모바일에서 GPS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후 동네 주변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물건 거래 등이 성사되도록 돕는 서비스다.

최근에는 물건 거래가 아닌 벌레 퇴치를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글을 게시한 이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여성들로, 벌레가 무서워서 처리할 수 없는 탓에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게시판에는 '벌레 사체 치워주실분 있나요', '지금 자택에 바퀴벌레 있는데, 대신 잡아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등의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글 내용은 대략적인 거주지 위치와 벌레 퇴치를 부탁하면서도, 혼자 살고 있어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게시자는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병원 인근에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손대질 못하겠다. 제발 처리 좀 해달라"며 "여성

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가까운 곳에 게시는 남성분이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자취생 이모(27)씨는 "평소 벌레를 무서워하는 탓에 도움이 절실하던 중 사례금을 드리고 벌레 퇴치를 한다는 말에 앱을 설치했다"며 "그런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채팅창에서 주소지를 공유하는데 불안함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단순 실시간 채팅으로 주소지가 공개되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자칫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주고 받는 채팅을 막을 수도 없으려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을 일일이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

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손쉽게 얻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퍼뜨린다거나, 이후 주거침입 등이 우려되면서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광주지역 주거침입 건수는 최근 3년간(올해 8월까지) 총 824건으로, 2017년 175건, 2018년 214건, 2019년 259건, 올해 8월까지 17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거침입으로 인한 성범죄 건수는 같은 기간 총 27건으로 2017년 15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올해 8월까지 6건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시간 채팅으로 서로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자칫 주거침입 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상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는 일은 자제해야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오늘의 날씨 ▶벌레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 해돋이 06:18 해질 18:35
🌙 달돋이 06:48 달짐 19:26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20 (우산 챙기세요)
- 벌레 30 (실내건조기 좋아요)
- 세차 30 (간단히 닦아주세요)
- 운동 30 (실내운동 하세요)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70~10	목포	02:40	07:56
목포	70~10	순천	14:54	20:10
순천	70~10	여수	09:36	03:19
여수	70~10		21:58	15:36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9월 19/토	(16/25)	(16/24)	(16/25)	(15/25)	(14/27)	(20/25)
20/일	(16/25)	(15/23)	(16/24)	(15/24)	(15/25)	(20/25)
21/월	(15/25)	(14/24)	(15/22)	(13/24)	(13/25)	(19/24)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광주인권상·특별상 후보자 공모 5·18재단, 오는 30일까지 접수

5·18기념재단은 오는 30일까지 '2021 광주인권상'과 '광주인권상 특별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인권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증진,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인사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주인권상 특별상'은 문화, 예술, 언론, 학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인사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후보자(단체)는 스스로 추천할 수 없으며 동일한 단체에서 소속인사를 추천할 수 없다.

후보자 추천서는 이메일(gwangjuprise@gmail.com)과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52, 1층 5·18기념재단 광주인권상 담당자)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5·18기념재단 국·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환준기자



거리두고 불시 음주운전단속 17일 오후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남부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을 고려, 지속적으로 낮에도 음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남부경찰서 제공>

남광주시장·장미의거리,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동구, 중기부 공모 선정...대표 상품·콘텐츠 개발 등 지원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과 조선평화시장, 장미의거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대표 상품과 문화적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한다.

동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환경 개선, 수산물 축제, 온라인 상거래 육성 등 남광주시장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조선평화시장의 거리에는 벽화 골목길과 추억의 박물관, 미술대학과 연계한 창업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한다. 장미의거리 일일 상점가를 대학연계형 문화 관광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남구,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 본격화

21일 하루 설계 공모...12월 최종안 선정·2022년 완공

광주 남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설계 공모에 나섰다.

남구는 17일 "공공기관 시설로서의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효천문

화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건축 설계를 공개 모집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3억9천780만원 규모의 건축 설계 프로젝트 공모에 많은 업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 참여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해 관련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로, 관련법에 근거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 하루 동안만 설계 공모 등록을 접수하며, 같은 날 오후 4시 효천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 예정지인 행암동에서 설계 공모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사 사무소별 설계 공모안 접수는 오는 11월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남구는 11월말께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12월2일 최종 설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는 사업비 84억5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며, 오는 2022년 9월까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광주대, 문화콘텐츠 'K컬쳐' 창업 인재 양성

광주대학교가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은 'K컬쳐' 관련 청년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한다.

광주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5일 학교 인성관 1층 세미나실에서 ㈜우드앤홈 A·(주)제이로드엔터테인먼트와 'K컬쳐 창업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대는 K-컬쳐 산업 분야 사회진출을 꿈꾸는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를 지원하고 관련 분야 창업

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공간 제공과 청년 창업자 인큐베이팅, 창업자 발굴 추천, 청년 창업자의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나중희 산학협력단장은 "각 기관과 상호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K팝과 K콘텐츠 관련 청년 창업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마스크 공장 직접생산

도·소매 환영

- 공장도가판매 -

주식회사 반도상사

주소: 광주시 북구 하서로 205-2

문의: **080-374-5046**